

# “우리도 성실한 제과인이 되고 싶어요”

## 사랑의 일터 부천 ‘헤림 브레드가든’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에 위치해 있는 헤림 브레드가든(www.haelimbg.or.kr)은 빵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취지 아래 모델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설립됐다. 이곳은 정신지체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인 동시에 빵을 외부에 판매하는 생산업체로 교육과 실무를 병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인은 11명으로 부천지역에서는 상당히 인지도 높은 장애인 복지시설 중 하나다. 헤림 브레드가든에서 생산된 제품은 부천시청과 서곶중학교, 교회, 어린이집 등에 납품돼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소보로빵, 크림빵, 식빵 등 생선품목이 단순한 편이지만 교육생들이 정성스레 만든 빵은 맛뿐만 아니라 순수한 사랑이 담겨있다.

사랑의 일터인 헤림 브레드가든은 전문 제과강사에 의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정신지체인들의 제과인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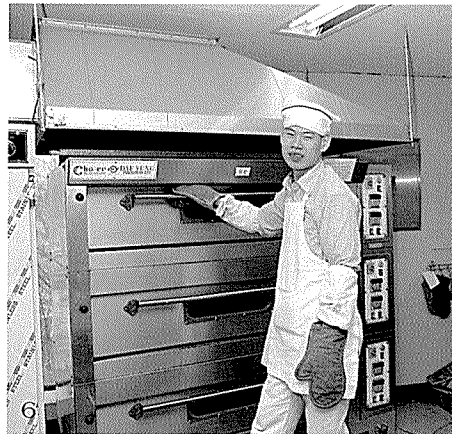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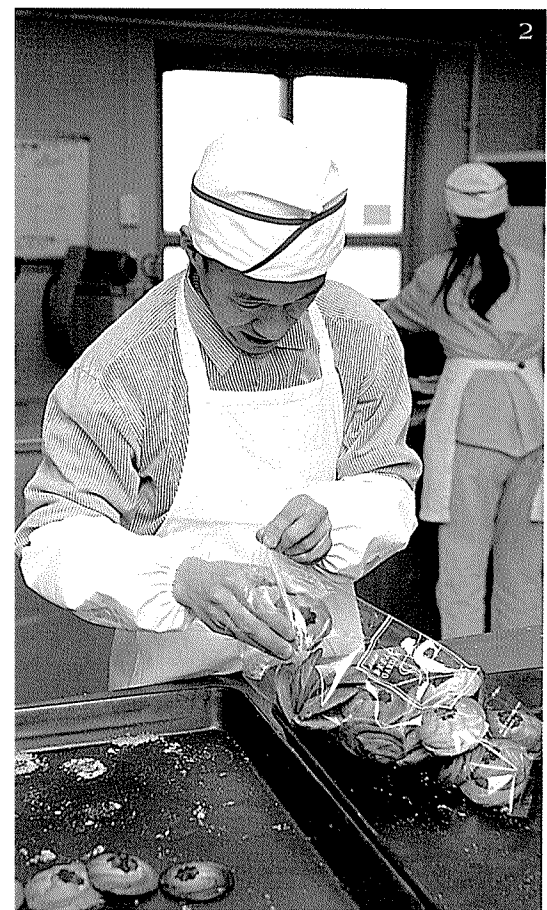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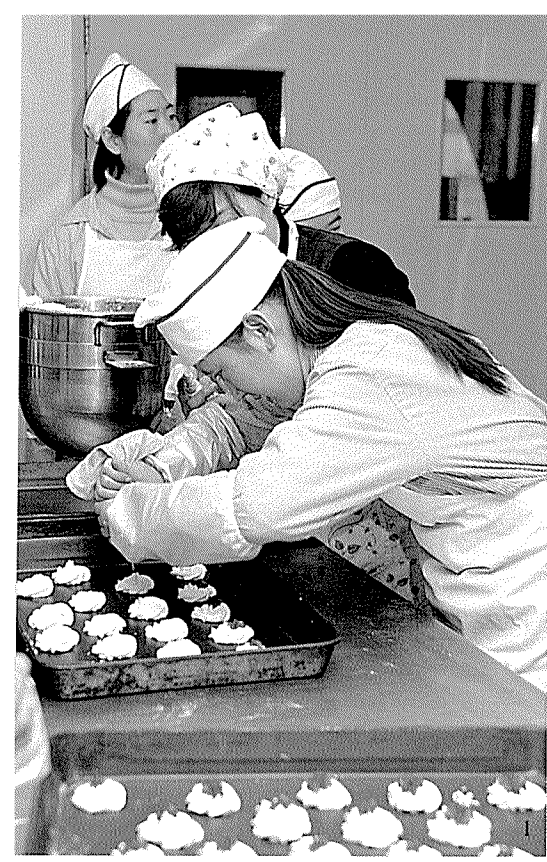
을 실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다. 헤림 브레드가든의 한 교사는 “이곳에서 교육받은 정신지체인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라고 바람을 얘기했다. 실제로 정신지체인을 현장에서 활용하게 되면 현재 제과업계의 초급기술자 부족이라는 인력난의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지체인도 설겅이와 청소를 비롯해 오븐보기, 성형, 계량, 포장 등의 작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우리사회 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선견과 편입견이 많은 곳도 드물 것이다. “장애인은 무조건 일을 잘 못할 것이다.”라는 의식은 이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잘 교육받으면 누구보다 성실하고 능숙하게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사진 / 정한상 jeong@mbakery.co.kr〉



▲ 헤림브레드가든의 식구들. 선생님 두분과 11명의 교육생들은 미래의 제과인을 위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다.



1. 찰주머니로 짜는 모습이 이제는 제법 능숙해 보인다.
2. 교육생이 정성스럽게 만든 제품을 포장하고 있다.
3. 작업에 집중하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흐트러짐이 없다.
4. 한 교육생이 스크레이퍼로 철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
5. 교육은 전문 제과강사에 의해 충분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6. 이제는 교육생 스스로 오븐을 잘 다루고 있다.



7. 납품될 제품을 종류와 수량별로 주문서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8. 작업이 끝나면 철저한 정리정돈과 청소를 실시한다.
9. 자원봉사자 이준마와 교육생들은 한 식구처럼 다정하게 지낸다.
10. 작업장 옆에 위치한 허미 베이커리카페.



※ TEL : 032) 611-7994

2002년 2월 11